

선수들의 부상 투혼... 금메달보다 빛난다

불굴의 의지, 감동의 소치

와이브레트, 4년간 4번 수술 받고 은메달 박승희도 통통 부은 무릎으로 금빛 질주 발목골절 제이콥·혈관염 다케우치 '감동'

감동은 올림픽의 꽃이다. 올림픽에는 승자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는 넘어지고 또 누군가는 좌절한다. 또 누군가는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우뚝 선다.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 소리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달리는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 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다.

부상을 이겨내고 투혼을 발휘하는 스타들의 활약으로 2014소치동계올림픽이 '감동' 올림픽이 되고 있다.

17일(한국시간) 알파인 스키 남자 슈퍼대회전 경기에서 눈길을 끈 선수는 앤드루 와이브레트(미국)다. 그는 4년 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스타가 됐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그에게 아무도 시간이 찾아왔다.

와이브레트는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동메달 획득 후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오른쪽 어깨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다. 또 얼마 후엔 왼쪽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까지 겹쳤다.

부상의 악몽은 계속됐다. 이듬해엔 왼쪽 어깨 수술을 받았고, 2012년 오른쪽 발목까지 발상을 부렸다. 온 몸이 부상 병동이나 다름 없었다.

선수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그는 스키를 벗지 않았다. 불굴의 의지로 재기에 성공한 와이브레트는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가장 불운한 스키선수에서 인간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18일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는 우리 대표선수들의 투혼을 발휘하며 금메달을

획득해 감동을 줬다.

박승희(화성시청)는 14일 열린 500m 결승에서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다. 경기 중 영국의 엘리스 크리스티가 아리아나 폰타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박승희까지 건드렸다. 두 번이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레이스를 펼친 박승희는 동메달로 아쉬움을 달랬다.

안타깝게도 박승희는 당시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 통통 부어오른 탓에 1500m 경기엔 나서지도 못했다.

치료를 전념해온 박승희는 마침내 3000m 계주에서 심석희, 김아랑, 조해리, 공상정과 함께 금메달을 함락하는데 성공했다. 그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미국의 스노보드 선수인 트레버 제이콥은 남자 크로스 준결승에서 부러진 발목으로 경기를 완주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첫 번째 점프 뒤 착지하는 순간 발목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고, 이 순간 발목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제이콥은 그 상태로 준결승에 나섰고 4위로 마치는 투혼을 발휘했다. 제이콥은 이후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고통을 참으며 6~12위 결정전까지 출전한 끝에 최종 9위에 올랐다. 메달 획득과 상관없음에도 끝까지 완주한 제이콥에게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일본 남자 스키점프 대표 다케우치 다쿠는 병마와 싸운 끝에 동메달을 따내는 기적을 만들었다.

그는 이번 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처그스트라우스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육아중성 혈관염이 장기에 침투해 면역 체계를 뒤흔드는 질병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다케우치는 병원 치료 후 올림픽 출전을 강행했다. 그는 체중이 빠지는 등 정상 컨디션이 아남에도 끝까지 투혼을 발휘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16일 러시아 소치코르사나야 블라나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슈퍼 G 알파인 스키 부문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미국의 앤드루 와이브레트가 레이스를 마친 직후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하고 있다. 소치 | AP뉴시스



'노깅 야키'. 노르웨이 컬링 남자대표팀이 소치올림픽에서 '패시니스타'로 화제를 모았다. 밴쿠버올림픽 은메달 못지않게 화려한 유니폼으로 인기를 끌며 페이스북에서 55만 명의 지지를 받은 노르웨이대표팀.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치러진 9개국과 경기를 대비해 디자인이 다른 9벌의 유니폼을 제작했다. 노르웨이 국기를 형상화한 것부터 눈꽃과 꽃장식이 박힌 다양한 의상이 시선을 끌었다. 예선에서 5승4패를 기록한 노르웨이는 공동 4위에 오른 영국과 18일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가졌지만 패배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소치 | AP뉴시스

'팬티 바람'으로 소치까지...

시베리아 지역 겨울수영 동호회원들 화제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울스크에서 소치까지 3700km를 횡단한 시베리아의 겨울수영 동호회원들. 사진출처 | 이터라스통신 홈페이지 캡처

시베리아 지역의 겨울수영 동호회원들이 동계올림픽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2주일간의 마라톤 끝에 러시아를 횡단한 사연이 화제다.

18일 러시아 이타르타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시베리아주 울스크 지역의 겨울수영 동호회원 20명은 자국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 개막을 축하하고, '따뜻한' 휴해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수영복 차림으로 장거리 원정에 나섰다. 울스크에서 소치까지 거리는 약 3700km.

1월22일 울스크를 출발한 이들은 서너명씩 그룹을 지어 하루 15~17km씩 이어달렸다. 무려 2주일 동안 달려 소치에 도착하기까지 이들은 해가 지면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에서 잠을 잤다. 이번 원정길에 참가한 니콜라이 글루시코프(60) 씨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다시 찬바람을 맞으며 뛰는 게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이들은 애초 3700km에 이르는 전 코스를 수영팬티와 모자만 쓰고 달려왔지만, 일부 고지대에서는 섭씨 영하 35~37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에 하의를 입고 달리기도 했다. 오렌부르크 근처에서는 맹렬한 강풍을 만났고, 로스토프에서는 폭설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래도 동호회 규칙에 따라 상의는 입지 않았다고 한다.

'산 남고 물 건너' 개막식 전날인 6일 소치에 도착한 이들은 나흘간 휴해에서 수영도 하고, 몇몇 경기를 관전하는 등 올림픽을 즐긴 뒤 울스크로 돌아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푸틴 반대' 여성 록그룹, 체포됐다 금방 풀려나

러시아, 올림픽 축제 분위기 망칠까 곤혹

러시아 소치가 올림픽으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반대하는 공연으로 유명해진 여성 5인조 핑크 록그룹 푸시 라이엇의 멤버 2명이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미국 LA타임즈 등은 19일(한국시간) 푸시 라이엇의 멤버 나테즈나 톨로코니코바와 마리아 알료히나가

소치 경찰에 체포된 후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머물던 호텔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난 뒤 경찰에 연행됐다.

체포 당시 톨로코니코바는 SNS에 "우리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소치 시내를 걷고 있었을 뿐"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 위해 소치에 왔다"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일부 목격자들은 "푸틴을 조롱하는 내용의 뮤직 비디오를 촬영하다 체포됐다"고 증언했다.

푸틴 입장에서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러시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비하하는 공연으로 유명한 여성 록밴드 푸시 라이엇이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고 있다. 사진출처 | 영국 텔레그래프 홈페이지 캡처

신을 곤란하게 하는 푸시 라이엇이 달갑지만은 않다. 그룹명부터 심상치 않은 푸시 라이엇은 2012년 대선이 한창이던 2월 스키 마스

크를 쓰고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인근 러시아 정교회 구세주성당 제단에서 '성모여, 푸틴을 쫓아내소서'라는 노래를 불러 파문을 일으켰다. 공연을 시작한 지 1분도 안돼 제지당했지만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됐고, 이들은 종교 증오 조장 및 난동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전날 비틀즈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와 마돈나는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쳤지만 멤버 다섯 명 중 세 명이 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 가운데 2명이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한 톨로코니코바와 알료히나다.

백술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2357

BLACK LION
 KING OF THE OUTDOOR

통진섬유를 장착하여 지저분한 습기를 바로바로 날려버린다

회음부를 자색섬유가 하루종일 자극하여 내부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강력한 파워를 발산하는 원동력인 부분

8자 주머니처럼 설계되어 적당한 크기의 고탄력 특수 밴드부분

회음부를 자색섬유가 하루종일 자극하여 내부 흐름을 원활

52개이지 직조 아스킨 냉감원단

통진섬유는 전기가 흐르는 섬유

입기만해도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마그넷이 회음부 자극하여 입기만 해도 저절로 강화!! 분리가능, 자극가능, 고기능성 원단, 가격은 일반팬티

아랫도리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만들어낸 블랙 라이언 필립(必)팬티는 하루종일 반드시 세운다는 사명을 갖고 연구진의 심혈을 기울여 탄생한 물건이다.

기능부터 나뉘는 8자 내부 구조로 기획

단순한 듯 보이지만 남자의 세 축을 완벽히 분리하여 24시간 관리하고 사타구니에 딱 차는 것은 완벽히 차단하며, 세균번식 억제기능을 가진 내부 은사원단으로 항상 청결함을 유지한다. 삼단분리는 딱 차단은 기본이고, 내부 온도를 하강시켜 항상 남성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니 안 좋을 수 있겠는가? 8자 주머니에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도록 적당한 크기와 고타력 특수 밴드를 장착했다.

마그넷이 회음부를 직접공략하니 저절로 좋아져

블랙라이언 필립팬티가 강력한 파워를 발산하는 것은 회음부

를 자색섬유가 하루종일 자극하여 내부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회음부는 음경과 항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곳으로 이곳만 잘 자극해도 좋은 것에 착안하여 제작되어 실용성인 등록 까지 획득한 특수소재는 기발한 제품이다. 입는 순간부터 외닿는 느낌이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 줄 것이다.

통진 섬유와 아스킨 냉감 원단 사용, 수분 날려버려

통진섬유는 전기가 흐르는 섬유다. 인체에서 흐르는 미세한 전기를 이용한다. 음경과 음낭이 닿는 부분이 이 까칠한 통진섬유를 장착하여 지저분한 습기를 바로바로 날려버린다. 여기에 피톤치드 향으로 항균과 탈취기능도 강화시켰다. 아스킨원단은 입는 순간 내부온도를 2~3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니 남자한테 딱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이것 저것 좋은 기능을 다 제공 하므로 초절제 가격이니 안심 이유가 없다고 고객님은 말한다.

제품명 블랙라이언 필립팬티 사이즈 95, 100, 105, 110 색상 블랙, 블루, 네이비 회원특가 필립팬티 3중 ₩139,800 → ₩69,900 (50%할인행사)

제품문의 1544-0247